

# 南北韓 離散家族의 再結合問題

—南北 離散家族問題를 中心으로—

具 本 泰

- |                       |                           |
|-----------------------|---------------------------|
| I. 序：南北 離散家族問題의 性格    | IV. 南北 赤十字會談의 展望          |
| II. 赤十字社와 離散家族 再結合 問題 | V.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한 餘他의 努力 |
| III. 南北 赤十字會談의 成果     | VI. 結 語                   |

## <要約文>

家族은 '情'으로 結束된 社會이며 家族이 함께 산다는 것은 天賦의 權利에 해당한다.

南北 離散家族問題는 "人爲의 作用에 依하여 個人의 自由意思와는 關係 없이 家族成員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狀態에서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南北 離散家族問題는 南과 北으로 떨어져 있다는 '空間的' 離散, 分斷 以後 44年間이라는 '時間的' 離散, 그리고 相異한 理念·體制에서 비롯되는 '理念的' 離散으로서의 性格을 지닌다.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있어 赤十字社의 仲介役割은 1949年 Geneva 協約 以後 계속 되풀이하여 強調되어 왔다. 이같이 離散家族問題 解決을爲한 赤十字社의 役割에 對해서는 大韓赤十字社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大韓赤十字社는 1971年 8月 南北 離散家族 찾기 運動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南北 赤十字 間에는 92 차례에 걸친 接觸과 會談이 進行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南北離散家族問題 解決을爲한 '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成

果를 이룩하였다.

그간 南北 赤十字 間의 接觸과 會談을 通해 南과 北은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한 5 個項의 議題에 合意를 보았고, 南北 往來節次를 포함한 諸般 進行節次에 對한 合意를 이룩하였다. 또한 서울·평양 間에 20回線의 南北 直通電話를 架設하였으며 板門店에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를 開設하였다. 뿐만 아니라 南北 赤十字 間에 南北 離散家族 再會問題에 對해 合意되는 事項을 實行하기 爲한 '南北 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 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設置하는 데에도 原則的인 合意를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간의 成果를 代表하는 것은 1985年 9月 20日~23日 서울·평양 間에 비록 都合 100名에 局限된 소수의 人員이긴 하지만 홀어져 살아왔던 離散家族들이 訪問하여 헤어진 家族들과 再會를 한 일이다. 이를하여 '南北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 事業이다. 아직 第2次 訪問團 交換이 實現되지 못하고 있지만 同 事業은 1,000萬 南北 離散家族들의 再會를 約束하는 표징이 되고 있다.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爲한 南北 赤十字 本會談은 10次에 걸쳐 서울·평양 往來 會談으로 開催되어 왔으며 1985年 12月 서울에서 열린 第10次 會談에서 雙方이 提示한 合意書 草案은 文案調整 단계에까지 進展되고 있다.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한 努力은 南北 赤十字機關 以外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大韓民國에는 1983年 2月 設立된 1,000萬 離散家族 再會 推進委員會가 各種 離散家族 再會를 爲한 活動을 벌리고 있으며, 放送, 新聞 등에서도 北韓의 家族에게 보내는 書信을 띄어 보내는 등 離散家族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의 問題는 南北間의 政治的 關係 進展에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南北 赤十字會談에서 이룩한 成果들을 오히려 南北間의 諸般 接觸과 交流의 橋梁이자 窓口가 되어 왔다.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한 努力은 離散家族問題 解決 自體는 물론 南北韓의 民族統合으로 나아가는 牽引車 役割을 수행할 것이다.

## 1. 序 : 南北 離散家族問題의 性格

J. J. Rousseau는 “모든 社會 中에 가장 오래되고 또, 唯一한 自然스러운 社會는 家族이며, 家族이 國家와 다른 것은 ‘愛情’이 介在하고 있는 點”이라고 指摘하였다.<sup>1)</sup>

비단 Rousseau의 指摘에서 뿐만 아니라 東西古今을 通해 어느 누구도 ‘情’이 家族을 結束하는 媒體라는 데 疑問을 提起하지는 않는다. 특히, 父母와 子女間의 ‘血肉의 情’은 기독교에서의 agape의 사랑과 佛敎에서의 ‘信愛’의 標本이 되는 것으로서 家族이 하나의 生存單位로서 살아가는 것은 一種의 天賦的 權利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南北이 分斷됨으로 해서 생긴 離散家族의 問題는 이 같은 ‘情’의 渴求로 나타나고 있다.

父母와 子息 間의 情, 兄弟·姊妹 間의 情, 親戚間의 情이 故郷에 대한 그리움과 어우러져 望郷歌를 낳는다. 南北 分斷 43년이 되는 時點에서 「平和新聞」이 마련한 “南과 北의 離散家族들이 書信을 通해 만나는 平和의 廣場”<sup>2)</sup>에 寄稿된 離散家族 몇 사람의 便紙 內容을 拔萃하여 引用해 보고자 한다.

〈作家 李鏞喆氏가 북쪽의 막내 누이 동생에게 띄우는 便紙〉<sup>3)</sup>

북쪽에 살아 있을 것으로 알고, 너에게 몇 字 적는다. 아아, 새삼 기가 막히다. 헤어질 그 때 國民學校 2學年, 훌 아홉살이던 네가 지금 47才라니 와락 두렵고 끔찍스럽구나. 그렇게 하얗게 흘쩍 짐을 떠났는데, 이것이 40年의 이별이

1) J.J. Rousseau, *Du Contract Social*, 第1卷.

2) 「平和新聞」, 1988年 8月 14日부터 연속 게재.

3) 앞 글, 1988年 8月 14日.

되어 버리고 말았구나. 요즘 交通便으로 세 시간이면 너근한 距離인데도 도대체 무슨 駭怪한 일인지……. 永德아! 이게 그다지 오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가 별이라도 傳하고, 生死 與否라도 알 수 있는 날은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1988年 8月 서울에서 오빠가

〈韓國日報 洪義氏가 함경남도 北靑郡 新浦邑에 계시는 외삼촌에게 보내는 便紙〉<sup>4)</sup>

길어야 한달쯤 했던 離鄉의 길이 이처럼 터무니 없는 歲月이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날 뱃머리로 가던 우리 家族이 잠시 외삼촌 宅에 저녁 밥을 먹은 뒤였지요. 짐을 챙기고 길을 나서기 직전 삼촌은 저를 붙잡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스러울테니 이 애는 우리집에 그냥 두고 떠나면 어떻겠느냐”고. 이미 生存하지 않으실지도 모를 북쪽 외삼촌께 드리는 이 便紙는 내 故鄉 新浦에 띄워 보내는 고무풍선 같지만 합니다. 答信을 기다릴 수 없는 이 부푼 풍선이 故鄉바다 언저리에서 저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조각 조각 부서져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각 하나가 외삼촌에게라도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1988年 8月

〈詩人 이기형氏가 北의 어머님께 드리는 便紙〉<sup>5)</sup>

어머님의 주름살과 白髮을 저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려 보았습니다. 이 不孝子은 지금 어머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筋力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祖國땅 서울과 함흥, 南과 北 내 땅에서 43年 동안이나 電話 한 통, 便紙 한 장 오가지 않고 母子가 生離別인 채 一字 無消息으로 살아 왔더니, 이런 기막힌 悲劇이 世界 어디에 또 있었던 말입니까?

38分斷의 벽이 없어지고 國土와 民族이 하나로 復元되는 날 어머니와 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그날까지 비록 百才가 넘더라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어머님 百才長壽 만세!

1988年 8月 20日

4) 앞 글, 1988年 8月 21日.

5) 앞 글, 1988年 8月 28日.

또한 3年前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時 故鄉을 찾은 南北 離散家族 민경익氏(서울 거주)는 평양에 있는 두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家族들이 단층 slave 집에서 아파트로 옮길 것을 권하지만 3年前 두 자식과의 相逢때 現在의 住所를 알려 주어 便紙라도 옮겨봐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6)</sup>

이처럼 ‘情’에 對한 渴求를 基本屬性으로 하는 南北 離散家族은 “人爲의 作用에 依하여 個人的 自由意思와는 關係없이 家族成員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狀態에서 다시 모이게 못하게 되는 사람”<sup>7)</sup>일 뿐만 아니라 南北으로 떨어져 있다는 ‘空間的’ 離散, 分斷 43年이라는 ‘時間的’ 離散, 그리고, 상이한 理念·體制에서 비롯되는 ‘理念的’ 離散이라는 性格을 함께 지니고 있다.

## II. 赤十字社와 離散家族 再結合 問題

國際 赤十字社가 離散家族들의 再會問題를 赤十字社의 기능의 하나로 다루기 始作한 것은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4協約)에서 離散家族들의 再會를 위한 便宜 提供을 第26條로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離散家族의 再會問題가 제네바 協約에 삽입되어 國際人道法으로 確立되자, 1952年 ‘토론토’에서 開催된 第18次 國際赤十字會議은 離散家族의 再會 實現問題를 人道的 課業으로 規定하고 이 課業을 解決하는 데 各 國際赤十字社가 仲介機關으로서 모든 役割을 다 할 것을 促求하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에도 離散家族問題에 對한 赤十字社의 役割을 강조하는 主要決議가 이루어졌다. 그 代表的인 例로는 1957年 뉴델리 第19次 赤十字 國際會議에서 모든 赤十字機關과 政府에게 離散家族問題解決에 가

6) 한겨레新聞, 1988年 9月 20日, 故鄉訪問團 3週年 특집 대담.

7) 大韓赤十字社, 「離散家族白書」, 第2卷, 1986年, p. 279.

일층 努力할 것을 促求한 것을 비롯하여, 1965年 비엔나 第20次 赤十字 國際會議, 1971年 멕시코 第31次 赤十字社 聯盟理事會, 1975年 헬싱키 유럽 安保協力會議 등에서 離散家族 再結合을 爲한 赤十字社의 仲介機關으로서의 役割을 促求한 것을 들 수 있다.<sup>8)</sup>

그리고, 最近 1988年 10月 Geneva에서 열린 第25次 國際赤十字會議에서는 赤十字運動의 人道的 役割, 특히 各國 赤十字社와 離散家族 再會 關聯國 間의 協助와 各國 人道的 團體의 役割을 特別히 強調하고 있다. 同 決議案의 主要 內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離散家族의 再會, 家族에 關한 情報交換, 失蹤者의 追跡에 대한 各國 赤十字社의 지속적인 努力을 再闡明하고,
- ② 離散家族 再會를 爲하여 各國 政府가 赤十字社를 支援할 것을 促求하며,
- ③ 各國 政府에 대해 國家를 떠나서 家族을 받아 들여 주겠다고 宣言한 國家에서 家族과 再會하기 爲한 之命者의 申請書를 好意的이고, 人道的인 方法으로 取扱하고, 그러한 申請에 對하여 적절하고 同情的인 고려를 하고, 그것을 人道的 見地에서 신속하게 決定하고, 어떤 申請者도 否當하고 差別的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促求하며,
- ④ 各國 赤十字社에 대해 이러한 人道的인 問題解決을 위해 各國 政府 사이에서 仲裁者 役割을 하도록 要請하며,
- ⑤ 各國 赤十字社는 相互 協力하고 또한 赤十字 國際委員會와의 接觸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平和를 具現하는데 매진할 것을 促求한다.<sup>9)</sup>

離散家族 再會를 爲한 赤十字社의 努力은 大韓赤十字社의 活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87年 大韓赤十字社가 發刊한 「大韓 赤十字社 八十年史」에는 南北 離散家族 찾기 事業과 이를 爲한 南北 赤十字會談 경과를

8) 앞 글, pp. 279~282.

9) Jovica Patronovic, “國際人道法的 側面에서 본 離散家族 再會問題,” 一千萬 離散家族 再會 推進委員會.

80年史의 主要 部分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우기 同 80年史의 發刊辭에서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南北으로 흩어진 우리의 離散家族들에게 再會의 기쁨을 안겨 주기 위한 南北 赤十字會談의 推進을 온갖 努力과 誠意를 모아 꾸준히 繼續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大韓赤十字社는 離散家族 再會를 爲한 活動만을 集中的으로 다룬 「離散家族白書」를 1976年과 1986年 2차례에 걸쳐 發刊한 바 있다.

大韓赤十字社가 南北 離散家族問題에 直接 관여하기 始作한 것은 韓國 停戰協定 第3條 第59項 ‘失鄉和民 歸鄉 協助委員會’의 活動을 支援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50年 中半의 拉北人士 行方과 安否확인 등을 爲한 努力이 있었으나 南北 離散家族 찾기 事業에 착수한 것은 大韓 赤十字社가 1971年 8月 12日 一千萬 南北 離散家族 찾기 運動을 提唱하고, 이를 계기로 南北 赤十字間에 會談이 開催되면서 부터이다.<sup>10)</sup>

### Ⅲ. 南北 赤十字會談의 成果

南北 赤十字 間에 첫 派遣員들이 1971年 8月 20日 板門店 共同警備區域 內의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公式 對面 이후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問題를 놓고 南北 赤十字社 間에는 지금까지 92차례에 걸쳐 接觸과 會談을 가졌다. 1988年 9月末 現在까지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爲한 南北 赤十字 間의 公式 接觸 및 會談은 派遣員 接觸 5回(1971. 8. 20~9. 16), 豫備會談 25回(1971. 9. 20~1972. 8. 11),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爲한 實務會議 13回(1972. 2. 21~6. 5),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 文案整理를 爲한 實務會議 3回(1972. 7. 27~8. 9), 第8次 本會談 再開

10) 一千萬 離散家族 再會 推進委員會刊, 「이 悲劇 언제까지나 : 한국의 離散家族問題」, pp. 10~12.

를 爲한 代表會議 7回(1973. 11. 28~1974. 5. 29), 第8次 本會談 再開  
를 爲한 實務會議 25回(1974. 7. 10~1977. 12. 9), 第8次 本會談 再開  
를 爲한 豫備接觸 1回(1984. 11. 20),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을  
爲한 南北 赤十字 實務代表 接觸 3回(1985. 7. 15~8. 22), 本會談 10  
回(1972. 8. 29~1985. 12)로 도합 92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외에 南北  
水災物資 引渡·引受를 爲한 實務接觸 1回(1984. 9. 18), 故鄉訪問團 實  
現을 爲한 連絡代表 接觸 8回(1985. 9. 8~9. 20) 등을 포함하면 南北赤  
十字 間의 接觸과 會談의 回數는 100회를 넘고 있다.

그 中 南北 赤十字 會談에서 다룬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 問題에 對한  
議題를 定하는데 무려 8個月동안 15차례에 걸친 公式 豫備會談과 13차  
례의 議題文案 實務會議를 거쳐야 했다.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爲해 南北 赤十字 間에 合議된 5個項의 議題는  
다음과 같다.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書信去來를 實施  
하는 問題.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問題.
- ⑤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上記의 5個項 議題는 南北 赤十字 間에 離散家族 再結合問題에 對한 定  
義와 解決의 方法을 原則의으로 合意한 것이다. 同時에 上記 5個項은 國  
際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赤十字 尋人事業의 項目을 反映하고 있다. 즉, 第  
1項의 ‘生死와 所在確認’은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 保護에 關한 제네바  
第4協約 第26條를, 第2項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相逢’은 離散家  
族 再結合에 關한 赤十字 國際會議 呼訴文을, 第3項의 ‘自由로운 書信交

換'은 제네바 第4協約 第65條와 107條를 그대로 反映한 것이고, 第4項의 '家族의 再結合'은 第19次 赤十字 國際會議 決議 第19條를 그대로 援用한 것이다.<sup>11)</sup>

이상의 5個項의 議題를 놓고 南北 赤十字 間에는 10 차례의 本會談이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열렸다. 第1次 本會談이 1972年 8月 29日~9月 2日 間에 平壤에서 열렸으며 第10次 本會談은 1985年 12月 3日~12月 5日 間에 서울에서 열렸다. 13年 3個月 期間中 10次에 걸친 本會談에서 南北 赤十字 間에는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爲한 雙方의 合意書 草案을 提示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더 以上の 進展을 보지 못한 채 中斷되고 있다.

南北 赤十字 間의 接觸과 會談에는 純粹한 人道主義 이외의 要素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 “離散家族問題는 分明 政治以前의, 思想以前의, 制度以前의 天倫의 問題이며 人道의 問題”<sup>12)</sup>여야 하지만 지난 期間 南北 赤十字會談을 통해 비춰진 離散家族 再結合問題는 高度의 政治的 問題였으며, 思想의 問題였고, 制度의 差異를 實感하는 問題였다는 것을 否認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같은 否定的 視角만으로 지난 期間의 南北 赤十字 會談을 評價하기에는 그 成果가 결코 만만치 않다. 離散家族의 苦痛을 解消하기 爲한 各가지 示範的 方案이 提示되었으며 雙方이 人道主義精神에 만 立脚한다면 당장에도 合意를 볼 수 있는 合意書 草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尖銳한 對立構造를 지닌 南北韓間에 對話와 接觸의 通渠를 열고 이어주는 役割을 해왔다는 點도 결코 看過할 수 없는 成果이다. 이러한 側面에 서서 그간 南北 赤十字會談의 成果를 나름대로 評價해 보고자 한다.

11) 大韓赤十字社, 「離散家族白書」, 1976, p. 288, 再引用.

12) 1971年 朴正熙大統領 8·15 光復節 慶祝辭.

### 1. 離散家族 問題解決의 基本 '틀' 을 마련 : 會談議題와 進行節次

南北 赤十字會談의 議題 5 個項에 南北이 合意 본 이래(同 議題는 1972. 6. 16. 第20次 豫備會談에서 合意되었음), 南北 赤十字 間에는 두 차례의 本會談에서 이를 再確認함으로써 당초의 合意된 議題를 修正없이 지켜왔다. 1972年 8月 30日 平壤에서 열린 第1次 本會談에서는 豫備會談에서 合意된 議題를 確認하고 正式으로 이를 채택한 이래 12年 3個月만인 1984年 11月 20日 第8次 本會談 開會를 爲한 豫備接觸에서 이를 再確認 하였다. 그간 赤十字會談이 進行되어 온 時間的 間隔에도 不拘하고 離散家族 問題의 合意는 준수 되어 왔다.

議題 5 個項이 離散家族 問題解決을 爲한 基本方向을 提示한 것이라면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에 關한 南北 間의 合意는 南北 赤十字會談 代表團의 南北往來 뿐 아니라 離散家族들의 南北往來를 爲한 示範的 節次를 提示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는 1971年 10月 6日 第3次 豫備會談에서의 合意에 따라 그 개념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本會談을 서울·평양으로 번갈아 가면서 開催기로 合意함에 따라 發生하는 代表團 및 보도진의 身邊保障問題, 便宜提供問題를 포함하여 南北 交通·通信連絡問題, 會談場所 이외 지역에서의 活動問題 등을 網羅하였다. 이러한 問題들은 격폐되고 對立되어 온 南北間에 人的 往來의 門을 여는 節次 등을 조심스럽게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2年 8月 11日 第25次 豫備會談에서 南北 雙方은 口頭合意를 토대로 각기 作成한 合意文을 交換·確認하는 方式으로 南北往來會談과 關聯한 其他 進行節次에 對한 合意書를 통해 18 個項에 걸쳐 諸般節次問題를 規定하였다. 이 中에서 身邊保障問題, 往來節次問題, 交通 및 通信問題, 便宜提供問題 등은 離散家族들의 往來를 爲한 示範的 節次로서 南北이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時에 그 대로 응용되었다.

우선 身邊安全保障問題는 南北 人的 往來時 가장 緊요한 問題로서 南

北韓 當局의 直接的인 保障이 必要한 것이다. 이는 相對側 地域에 체류하는 동안의 身邊安全은 물론 휴대품의 不可侵을 保障하는 問題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尖銳한 南北 對立關係를 고려할 때 政治的 망명 같은 일이 發生하여 이로 因해 會談을 中斷시키지 않도록 하는 細心한 配慮가 있어야 하는 問題이다. 따라서 身邊安全保障問題와 關連하여 南北이 力點을 둔 것은 自己側 地域에 오는 相對側 人員들의 身邊과 活動上의 安全을 保障하는 問題와 함께 “相對側 人員들을 매번 無事히 돌려 보낼 것을 保障(또는 담보)”하는 데 있었다.

둘째는 往來節次를 마련하는 問題로서 여기에는 往來人員의 名單, 身分證明書 所持, 境界線 通過地點, 검역 등의 一般的 節次問題가 포함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상대측 地域滯留期間 동안의 人員들의 活動에 對한 規定을 여하히 設定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對해 南北 雙方은 相對側 地域에 滯留하는 동안은 相對側의 秩序와 案內를 따르도록 한다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南北間의 人的 往來가 不純한 情報의 또는 調查의 目的에 利用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不識시키는데 力點을 두었다.

세째로는 交通·通信에 關한 問題로서 一切는 招請者側이 負擔토록 規定하고 있다. 그간 南北間에 休戰線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진 南北會談만 해도 수십 차례가 되고 往來人員이 1,300 餘名에 이르고 있으나 南北 赤十字社 間의 便宜提供問題에 對한 合意가 先例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滯留中 便宜提供問題가 南北間의 爭點으로 부각된 일은 없다.

## 2. 常設會談連絡事務所 設置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問題를 協議하기 爲한 南北 赤十字 間의 會談이 始作되면서부터 提起된 問題의 하나는 南北 赤十字 間의 連絡窓口를 만드는 일이었다. 1971年 9月 30日 板門店에서 열린 第1次 南北 赤十字 豫備會談에서 大韓赤十字側의 提議에 依해 板門店에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데 合意하였다. 當時 合意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大韓赤十字社는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를 '自由의 집'에 그리고, 北韓赤十字會는 '관문자'에 각각 設置한다.
- ② 雙方은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를 連結하는 直通 往復電話를 架設한다.
- ③ 南北 赤十字 間에 文書傳達을 必要로 할 때에는 常設會談 連絡事務所 間의 直通電話로 連絡을 取한 후 雙方 근무자가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만나 傳達한다.
- ④ 常設會談 連絡事務所에는 雙方이 자기 2名의 근무원을 配置하되 平日은 09:00부터 16:00,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고 日曜日은 휴무로 한다.<sup>13)</sup>

이같은 板門店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는 1972年 8月 11日 合意된 南北赤十字 本會談 開會를 爲한 進行節次에 關한 合意書에서 再確認되었다. 板門店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는 設置된 이래 지금까지 비단 南北赤十字社 間의 連絡問題 뿐 아니라 板門店 地域에서 이루어지는 南北間의 모든 對話와 分界線을 넘어 오고가는 南北往來에 관련되는 實務節次問題들을 協議하고 南北 往來書信을 주고 받는 등 諸般 南北 間의 連絡窓口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南北間에 이루어진 體育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豫備接觸 등의 南北對話 時에는 물론, 南北間의 水災物資 引渡·引受, 故鄉訪問團 交換 등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에 있어 板門店 常設會談 連絡事務所 役割은 實로 重要的 것이었다. 지난 4年間(1984年 南北間 水災物資 引渡·引受 이후 지금까지) 常設會談 連絡事務所를 통해 南北間에 往來된 書信의 回數만 해도 50回에 이르고 있다.

13) 1971年 9月 30日.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進行節次에 對한 合意事項, 第2項

남 북 서 신 통 계

1988. 9. 현재

구분 연도	3자 체육적십자		경 계		국 회		3자군사		수자원		정치· 문사		총 리		로잔스		남연		북서		학 생		계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1984	1	1	1	1																				13	12
1985					2	2																		2	2
1986							1	2 (1)	1	1														2 (1)	2 (1)
1987											1	3 (1)	2	1	2	2								5	6 (1)
1988																						2 (1)	3 (3)	3 (2)	5 (3)
계	1	1	1	1	5	5	1	2 (1)	1	1	1	3 (1)	2	1	2	2				2		2 (1)	3 (3)	25 (3)	27 (5)

( )은 방상 통지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계의 관련 방상통지

### 3. 南北 直通電話 設置

南北 常設會談 連絡事務所 設置와 함께 南北 赤十字 間에 連絡의 機能을 담당하는 裝置로써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南北 赤十字 間에 設置된 20 回線의 直通電話이다.

南北間을 連結하는 電話線이 架設된 것은 板門店 常設會談 連絡事務所 間에 設置된 往復電話가 그 始發이나 本格的인 서울·평양 間의 電話가 連結된 것은 1972年 8月 11日 第25次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에서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와 日時에 關한 合意書」가 채택된 데서 비롯되었다.

同 合意書의 第8項(通信)에서는 4個細項에 걸쳐서 서울과 평양을 往來하는 赤十字 本會談의 雙方 代表團 및 記者團을 爲해서 南北 사이에 總 20回線의 有線電話線을 保障키로 合意하고 南北 赤十字團體 中央機關 사이에 直通電話 2回線을 常時 開設할 것을 保障키로 合意하였다. 南北 直通電話에 對한 上記 合意에 基礎하여 1972年 8月 16日 南北間 通信保障을 爲한 技術實務者會議가 열렸으며 여기서 20回의 電話線의 構成方式, 設備의 各種 基準設定, 電話線의 運營方式 등 技術實務的인 事項에 對해 6個項에 걸친 合意書를 채택하였다.

南北間의 直通電話는 南北 赤十字社 間의 20回線 이외에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 發表와 함께 南北 調節委員會 間의 專用 直通電話의 架設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에 따라 2回線의 直通電話가 設置되고 1984年 11月 15日 南北 經濟會談에서 經濟會談 專用 1回線의 直通電話가 設置됨으로써 都合 23回線이 架設되어 있다. 南北 赤十字團體 中央機關 間에 常時 架設되어 있는 2回線의 直通電話는 南北 赤十字社 間의 連絡 뿐만 아니라 南北間의 各種 對話나 書信連絡을 위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南北間에 水災物資 引渡·引受를 계기로 그간 中斷되어 왔던 南北 直通電話가 다시 再開된 이후, 同 直通電話線을 利用하여 南北間에 오고간 電話通話文은 1988年 9月末까지 都合 223件에 達하고 있다.

남북 직통전화 통지문 통계

1988. 9. 현재

구분	수재 물자		체육	적심자	경제	국회	남북 어선	3자 군사		수차 원	고위급 정치· 군사	총리	로관스	남북 연석	학생기타	계			
	군정	직통						군경위	직통										
연도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남북			
1984	4	8	4	3	2	5	4	6	8							25	26		
1985					10	9	4	3	10	11	3					27	26		
1986					3	2	4	2	3	2						23	13		
1987										1	1					19	21		
1988																22	21		
계	4	8	7	4	3	2	19	16	14	13	25	25	6	3	3	5	4	116	107

( )은 방송 통지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제의 관련 진통

#### 4. 各種 合意書 채택

비록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한 最終的 合意를 이룩하지 못했지만, 10 次的 本會談을 통해 이룩한 여러가지 合意들은 앞으로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 貴重한 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南北 赤十字 本會談에서의 合意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1972年 8月 29日~9月 2日, 평양에서 열린 第1次 本會談에서는 1972年 6月 16日 板門店에서 열린 第20次 南北 赤十字 豫備會談에서 채택한 議題 5個項을 南北 赤十字 本會談 議題로 할 것을 確認하면서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에 基礎하여 南北 赤十字會談 議題로 設定된 모든 問題들을 成果的으로 討議·解決함으로써 南北으로 흘어진 겨레들의 苦通을 하루속히 풀어주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合意하였다.
- ② 1972年 9月 12日~16日, 서울에서 열린 第2次 本會談에서도 南北 赤十字會談의 議題 5個項의 解決을 위해 雙方 赤十字社가 民主主義原則과 自由로운 原則, 南北共同聲명의 精神과 同胞愛 그리고, 赤十字 人道主義精神을 철저히 具現할 것을 合意하였다.
- ③ 1972年 10月 23日~26日, 평양에서 열린 第13次 本會談에서 議題 1項에 對한 本格的인 討議를 進行하였으나 合意를 이룩하지는 못했고 次期 會談부터 南北을 往來하는 記者數를 從來의 20名에서 5名을 추가하여 25名으로 늘리는데 合意를 하였다.
- ④ 1972年 11月 22日~24日, 서울에서 열린 第4次 本會談에서는 南北 赤十字會談에서 合意되는 事項을 實行하기 위한 共同事業機構로써 '南北 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 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設置할 것에 合意하였다. 그러나, 同 機構의 機能과 運營節次 및 構成은 따로 討議 決定키로 留保하였으며 후속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아직까지 發足되지는 못하고 있다.

- ⑤ 1984年 11月 20日,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열린 南北赤十字 本會談 再開를 위한 豫備接觸에서 雙方 記者數를 從前 25名에서 50名으로 늘리는데 合意하였다.
- ⑥ 1985年 5月 28日~30日, 서울에서 열린 第8次 本會談에서는 議題 5個項을 再確認하고 議題 5個項의 包括的 討議原則과 自由往來의 原則에 合意하였다. 그리고,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을 交換할 것에 合意하고 그 具體的인 節次를 合意하기 위한 實務代表 接觸을 板門店에서 갖기로 合意하였다. 同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 交換은 3차례의 實務 接觸을 거쳐 1985年 9月 20日~23日 間 南北 각기 50名의 離散家族을 포함한 151名의 訪問團이 서울·평양을 交換 訪問하였으며 分斷이후 最初로 南北 離散家族이 再會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各種 合意들은 앞으로 南北 離散家族이 再會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各種 合意들은 앞으로 南北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 더딤돌이 될 것임을 否認할 수 없다.

### 5. 示範事業의 發掘

1千萬 南北 離散家族이 再結合하는 것은 南北分斷 이후 일관된 悲願이 었지만 그간 形成된 南北間의 不信의 障壁을 철어내지 않는 限 한꺼번에 實現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可能的인 示範事業에서부터 出發하여 離散家族問題를 풀어나가는 것이 現實的인 接近方法일 것이다.

南北 離散家族들 間의 示範事業이 最初로 提起된 것은 1973年 7月 10日~13日 平壤에서 열린 第7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였다. 當時 大韓赤十字社側은 北側이 3次 本會談 時부터 提起해 온 '先決條件'으로 議題 討議에 進展이 없자, "會談 進展의 基本이 되는 相互理解와 信賴를 증진 시킴으로써 會談을 촉진하고, 아울러 南北赤十字 間의 人道主義事業을 보

다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올해의 當面事業으로써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도 秋夕省墓訪問團을 構成하여 相互訪問하자"고 提議하였다.<sup>14)</sup>

이른바 '秋夕省墓團' 交換事業은 大韓赤十字社側에 依해 1975年 10月 23日 第13次 實務會議時 新正을 포함한 '省墓訪問團' 交流事業으로 修正 提議되었다. 그러다가 1976年 6月 9日 第17次 實務會議에서는 每年 秋夕, 新正, 舊正, 寒食 등 우리 民族의 名節을 기하여 省墓訪問團의 交流事業을 實施하자고 提議하였으며, 1976年 秋夕을 기해 交流할 第1次 離散家族 省墓訪問團은 雙方 各 500名 程度로 하고 1주일間 相對方 地域에 체류하자고 제의하였었다.

'省墓訪問團' 交流事業은 北赤側의 拒否로 實現되지 못했으나 祖上에 祭祀를 지내고 省墓를 함으로써 崇拜의 精神을 기리는 傳統的인 名節에 故鄉을 訪問하고 싶어하는 것은 離散家族들이 간절히 바라는 念願이 아닐 수 없다.

南北 離散家族들 間의 示範事業이 두번째로 提起된 것은 1974年 7月 10日 南北 赤十字 第1次 實務會議에서 大韓赤十字社側이 議題 第1項을 위한 示範的 事業으로 '老父母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우선 實施할 것을 提議한 데서이다.

一名 '老父母事業'으로 불리는 同 示範事業은 1千萬 離散家族의 苦通

14) 「先決條件」, 1972年 10月 23日~26日間 평양에서 열린 第3次 本會談에서 北赤側은 議題 第1項 離散家族·親戚의 往來와 生死確認事業의 實質討議를 위해 그에 앞서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환경이 먼저 改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先決條件으로 이른바 南韓에서의 法律的 條件改善과 社會的 環境조성이 必要하다는 政治問題를 提起하였음. 北赤側은 同 先決條件을 1973. 5. 8.~11, 서울에서 열린 第6次 本會談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즉, 大韓民國이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 反共立法들을 폐지하고 ② 反共機關과 團體들을 解體하며 ③ 一切의 反共活動을 禁止하고 ④ 離散家族을 찾기 위해 北에서 南으로 오는 者들은 물론 그들을 돕는 者들이나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 등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提供할 것과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의 不可侵權을 保障하는 法的·行政的 조치를 取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을 解消하는데 있어 이미 年老하여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老父母의 住所 生死만이라도 긴급히 알자는 것이다. 大韓赤十字社側은 1974年 11月 19日 第6次 實務會議에서 老父母事業의 實現을 위한 具體的인 案을 提示하였다. 老父母는 그들의 子女 또는 親戚들과 서로 南北으로 흩어져 살아 있는 60才 이상의 男女老人들로서 이들 當事者(老父母와 그 子女 및 親戚)들의 희망에 따라 相逢, 訪問, 書信交換을 實施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相逢을 위해서는 板門店에 '面會所'를 設置하고, 訪問의 경우에는 新正 및 秋夕 名節을 前後한 15日間 이내의 期間으로 하며, 書信交換을 위해서 板門店에 '南北 郵便物 交換所'를 設置·運營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提案이 實現되지 못하자 大韓赤十字社側은 1975年 2月 28日 第8次 實務會議에서 最少한 老父母와 그 子女들 間에 '家族寫眞交換'만이라도 우선 實施하자고 提議하기도 하였다.

南北離散家族들間의 示範事業으로 提起된 세번째가 '故鄉訪問團' 交換 訪問事業이다.

## 6. 故鄉訪問團 交換訪問

1985年 5月 28日~31日까지 서울에서 열린 第8次 本會議 첫날 會議에서 大韓赤十字側은 5個項의 議題의 實踐方案이 모두 合意되기 이전이라도 離散家族 찾기 事業을 촉진시키기 위한 示範事業으로서 해방 40周年인 1985年 8月 15日을 期해 一定 規模의 第1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을 構成하여 相互 交換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 提案에 이어 北韓赤十字側은 南北 赤十字會談의 雰圍氣 造成을 위해 光復 40年을 맞이하는 1985年 8月 15日을 기해 雙方 赤十字 總裁들이 각기 赤十字 會員들로 構成된 100名 程度의 藝術公演團을 대동하고 南北을 相互訪問하여 傳統的인 民俗歌舞를 基本으로 하는 祝賀公演을 가질 것을 提議하였다. 雙方이 提議한 '故鄉訪問團' 交換과 '藝術公演團' 交換公演은 第2日 會議에서 大韓赤十字社側이 두개의 示範事業案을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交換事業으로 推進할 것을 修正 提議한데 대해 北韓赤十字側이 會談 終了 直前に 이미 同意함으로써 극적인 合意를 이룩하였다.

當時 李永德 大韓赤十字社側 首度代表의 提議 內容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側이 提議한 南北韓 離散家族의 故鄉訪問團과 함께 藝術公演團의 交換을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一定 規模의 雙方 記者가 수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問題들에 對해서 實側이 同意한다면 오는 7月 15日 板門店에서 實務者 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합니다.

同 提議에 對해 北韓赤十字會側 李鍾律 단장은 原則的인 同意 意思를 表明하고 8次 本會議 第2日 會議 終了後 평양으로 귀환하기 前 實務者들 間의 接觸을 갖기로 하였다. 5月 29日 저녁과 5月 30日 아침에 이루어진 두차례 實務接觸에서는 1985年 8月 15日 光復節 40周年을 前後해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을 推進하기로 合意한 事業을 再確認하고 往來節次, 訪問團規模, 滯留日程 등 具體的 同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1985年 7月 15日 午前 10時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案에서 雙方 各 3名씩으로 構成되는 實務代表들 間의 非公開 接觸을 갖기로 하였다.

이 같은 合意에 따라 南北 雙方 赤十字 實務代表 間에 3차례의 接觸이 이루어졌으며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에 關한 20個項에 걸친 合意書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비록 당초 合意한 時期인 8·15 해방 40周年에 맞추지는 못하였으나 1985年 9月 20日~23日 동안 南北 赤十字社 總裁가 인솔하는 雙方 各 50名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50名의 藝術公演團이 서울과 평양을 交換 訪問하게 되었다. 同 訪問團 交換에는 取材記者 30名 및 其他 支援人員 20名이 수행함으로써 總 訪問團의 規模는 南北 各기 151名이었다.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訪問은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한 南北 赤十字社 間의 오랜 努力의 結實이자 分斷 以後 最初로 南北 間에 民間人士가 往來하는 先例를 남겼다. 비록 서울과 평양지역에 局

限되고 南北을 往來한 離散家族 數가 南北 都合 100名에 限定 되었지만 그 中 65名이 92名의 家族·親戚들과 극적으로 相逢·再會의 감격을 나누었다. 이를 相逢 地域別로 보면 평양을 訪問한 50名의 離散家族 中 35名이 북쪽에 살고 있는 41名의 家族·親戚을 相逢했고 서울을 訪問한 50名의 離散家族 中 30名이 南側에 살고 있는 51名의 家族·親戚을 相逢하였다. 또한 全體 相逢者 92名을 相逢 內容別로 보면 父母子息 間의 相逢이 12名, 兄弟 間의 相逢이 41名이며, 그리고 나머지 39名은 親戚 間의 相逢이었다.

1985年 12月 2日~5日, 서울에서 열린 第10次 本會談에서 大韓民國 赤十字社側 1986年 舊正을 期해 故鄉訪問團事業을 다시 推進할 것과 1次 故鄉訪問團 交換時 相逢 家族間의 書信 交換을 추진해 줄 것을 提議한 바 있으나 아직 實現되지 못하고 있다.

#### Ⅳ. 南北 赤十字會談의 展望

1972年 8月 南北 離散家族들의 再結合을 爲한 南北 赤十字 第1次 本會談이 始作된지 10年이 넘도록 5個項의 議題에 對한 具體的 討議가 進展되지 못하고 空轉을 계속하던 南北 赤十字 本會談이 第8次 本會談에서 부터는 양상의 變化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5年 5月 28日~31日 서울에서 열린 第8次 本會談에서 雙方은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한 議題 5個項의 事業의 ‘一括討議·一括合意’ 原則과 ‘自由往來’ 原則에 合意하였다. 이에 따라 1985年 8月 27日~30日 평양에서 열린 第8次 本會談에서 大韓民國 赤十字社側은 「議題 5個項의 事業實施에 關한 基本 合意書(案)」과 南北 赤十字會談에서 合意한 諸般 事業을 成果의으로 履行하기 위한 「南北 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 赤十字 板門店 共同 事業所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合意書(案)」 그리고 議題 5個項에 設定되어 있는 事業들을 實施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서 「南北의

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自由往來 節次에 關한 合意書(案)을 提示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赤十字會側은 「自由往來 同題에 對한 合意書」草案만을 일단 提示하였다. 第8次 本會談에서의 原則合意에 따라 第9次 本會談에서 合意書 草案 提示로 一步 進展을 보였던 南北 赤十字會談은 1985年 12月 3日~6日 서울에서 열린 第10次 本會談에서 雙方 共히 조정되고 보다 接近된 合意書 草案을 각기 提示함으로써 그간 오랫동안 끌어 왔던 南北 離散家族問題는 合意書의 文案 調整이 可能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大韓赤十字社側은 9次 本會談에서 提示한 3個의 合意書를 보완하여 提示한 반면 北韓側은 「自由往來에 對한 補完된 合意書 案」과 함께 「自由往來 以外의 其他 方途들에 關한 提案」을 새롭게 提示함으로써 自由往來 合意書만 채택하면 離散家族問題가 저절로 解決된다는 從來의 주장에서 一步 후퇴하여 議題 5個項의 一括討議·一括合意의 原則에 接近하는 태도를 보였다.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 赤十字 間의 會談은 1985年 12月 第10次 本會談 以後 再開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期間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해 이룩한 成果는 앞으로 南北 赤十字會談이 再開될 경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며 그러한 視角에서 그간의 過程은 결코 過小評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의 障壁이 가로막고 있는 狀況에서 다른 分野에서의 南北間의 對話와 接觸을 仲介하고 연결하는 바탕을 南北 赤十字社가 이룩했음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南北 赤十字會談은 政治的인 影響을 받지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政治에 影響을 주는 南北關係의 橋梁役割을 수행해 왔으며 또 수행해 나갈 것이다.

## V.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을 爲한 餘他的 努力

南北 赤十字會談을 통한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한 直接的인 努力 以外에 다양한 迂廻的·間接的 努力이 이루어져 왔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몇몇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放送·言論 媒體를 利用하여 便紙를 보내거나, 家族을 찾는 일이다. 이러한 例로 가장 代表的인 것은 비록 南쪽 地域에 局限되긴 했지만, 1983年 6月 30日 韓國放送公社가 “離散家族을 찾습니다.”라는 特別放送 프로그램을 試圖한 것이다. 同 프로그램은 당초 KBS가 6·25 戰爭 33周年 特別放送 프로그램으로 放映時間 120分을 豫定하고 始作한 것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 무려 138日間に 걸쳐 453時間 45分間 族送이 進行되고 離散家族들은 물론 모든 國民들이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게 한 事件으로 發展하였다.

同 프로그램은 KBS 9個 地方局과 第1라디오까지 동원되었으며 53,162名이 出演하여 10,189名의 家族을 만날 수 있었다. 放送이 進行되는 동안 폭발하는 需要에 이기지 못해 서울 여의도內에 離散家族들의 ‘ 만남의 廣場 ’을 設置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헤어진 家族을 찾는 身上明細書가 廣場 周邊壁을 깨알같이 누벼 놓았었다. 만남의 광장은 1983. 8.에 開設되어 1984. 6. 30까지 運營되었다. 그 以後 同 事業은 大韓赤十字社 內의 ‘離散家族찾기 事業部’에서 수행하고 있다.

만남의 廣場을 통해 大韓赤十字社가 接受한 離散家族 찾기 申請書는 43,179件으로 集計되었다. KBS의 離散家族 찾기 放送으로 말미암아 南北 離散家族問題 解決이 얼마나 절실한 問題인가를 눈으로 直接 確認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TV를 통한 이같은 南北韓 內에서의 離散家族 再會의 貴重한 경험은 最近에 이르기까지도 放送이나 新聞을 통해 北에 사는 家族들의 生死·所在를 찾는 便紙를 보내는 努力으로 이어지고

있다. 一例로 韓國 天主教 서울 敎區에서 發行하는 週刊新聞인 平和新聞은 1988年 8月 14日부터 '南과 北의 離散家族들이 書信을 통해 만나는 平和의 廣場'이라는 固定欄을 통해 便紙를 보내고 있으며, KBS 社會敎育 放送은 1975年 10月부터 매일 20分씩 北韓에 故鄉을 두고 온 失鄉民들의 便紙를 電波에 실어 보내고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컴퓨터를 利用한 家族찾기 方式이다. 大韓赤十字社는 KBS TV를 통한 離散家族찾기가 進行되는 것과는 별도로 1983年 7月 13日~8月 4日 期間 中에 109,000件의 離散家族 찾기 申請書를 接受하여 이를 컴퓨터에 入力시켜 우선 南韓 地域內에서의 離散家族을 찾아주는 努力을 試圖했으며 이를 통해 4,697 家族을 相逢시켰다. 아직 南北 離散家族 再會를 爲한 南北 赤十字會談이 타결되지 못한 狀況에 있으나 컴퓨터에 入力된 離散家族찾기 爲한 貴重한 資產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離散家族 再會를 目的으로 하는 기구들의 組織的인 活動이다. 南北 赤十字會談이 오랫동안 中斷되게 되자 1982年 8月 12日 大韓民國에 居住하는 離散家族들이 모여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家族 찾기 運動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여 8月 12日을 '離散家族의 날'을 制定하는 한편 14萬 離散家族 再會를 爲한 祖織的인 活動을 벌이기로 決議하였다. 이에 따라 1983年 2月 9日 1千萬 離散家族 再會 推進委員會가 결성되었으며 學術會議 開催 등을 통해 離散家族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루는 各實相符한 團體로 부각되었다. 1985年 9月 20日~23日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時 평양을 訪問하기를 希望하는 申請書를 離散家族들로부터 直接 받았고 또 北에서 온 故鄉訪問團들의 家族을 찾아주고 相逢케 하는 데도 이 機構의 役割은 至大했다.

## Ⅶ. 結 語

南北韓의 離散家族 再結合問題가 갖고 있는 特性은 '離散'이 다른 나라

가 아닌 같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또 離散 以後 再結合이 아데올로기에 의해서 거의 完全히 ‘遮斷’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離散家族問題가 本人들의 自由意思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南北間의 아데올로기의 和解와 分斷된 民族의 統合이라는 政治的 次元의 問題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南北 離散家族 再結合問題에 있어 人道主義만을 앞세우거나 政治的 側面만을 앞세우는 것은 어느 경우도 現實的인 解決方案이라고 할 수 없다.

南北 離散家族 찾기 運動의 一環으로 始作된 南北 赤十字會談의 進行過程은 南北間의 政治的 和解過程과 높은 相關性을 지니 온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로는 南北 赤十字 本會談議題를 合議하기까지 무려 8 個月동안 15 차례의 公式會談과 13 차례의 實務會議을 거치면서 難航을 거듭해 오다가 1972年 7月 4日 大韓民國 이후락 情報部長과 北韓의 김영주 勞動黨 組織指導部長 間에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를 앞두고 議題 5個項에 극적인 合意를 이룩한 것을 들 수 있다. 7·4 南北共同聲明에서는 第4項에서 “雙方은 지금 온 民族의 巨大한 期待 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 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적극 協助하는데 合意하였다”고 明示하고 있다.

또한 南北 赤十字會談은 北韓의 對南戰略 展開와도 높은 相關性을 보여 온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北韓은 對南暴力挑發企圖를 隱蔽하기 爲한 수단으로써 또는 그들의 暴力挑發行爲를 糊塗하기 위한 方便으로써 南北 赤十字會談을 利用해 왔다. 南北赤十字 豫備會談과 本會談이 進行되고 있던 1970年代 初에 그들은 南侵用 땅굴을 파왔으며 1983年 10月 버마 랑군 事件으로 因한 暴力集團 이미지를 씻기 爲해 南北 赤十字會談을 利用하였다. 北韓側의 暴力挑發과 南北 赤十字會談과의 이같은 事件的 연결은 6·25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大韓民國 國民들에게 그들의 ‘和戰 兩面戰術’에 對한 警戒심을 심어 놓기에 充分한 것이다. 北韓은 “아직도 舊態依然한 수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北側을 보는 平凡한 南側

사람들의 評價인 것이다.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爲한 南北 赤十字會談의 進展 여부는 南北 關係改善을 측정하는 ‘바로메타’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 離散家族問題는 高度의 政治問題이며 南北間의 政治的 和解에 左右되는 問題이기도 하다. 그러나 南北 赤十字會談이 南北間의 政治問題에 從屬變數로만 계속 남을 것이라는 結論을 내리는 것은 禁物이다.

前 필리핀 大統領이었던 Diosdado Macapagal 氏의 다음과 같은 言明은 南北 離散家族問題를 조명하는 國外者로서의 視角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理由에서건 離散家族의 再會에 對한 拒絶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正當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拒絶은 人道主義 趨勢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아人들은 先例로써 다른 亞細亞 國家들의 經驗을 자세히 觀察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래되고 크고, 經驗이 있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는 理念의 問題로 國民의 分裂을 許容하지 않았읍니다.”<sup>15)</sup>

그간 南北 赤十字會談을 통해 이룩된 成果들은 南北間의 政治問題를 포함한 諸般對話의 通路가 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差異에도 不拘하고 같은 民族이라는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더욱이 그간 南北 赤十字會談의 成果들은 南北 離散家族 第1世代가 이미 高齡이 되었거나 世上을 떠난 사람이 상당수 있는 狀況에서 다음 離散家族 2·3 世代들에게 離散家族 再結合의 努力을 승계하고 民族統合으로 이끄는 牽引車 役割을 할 것이다.

15) Diosdado Macapagal, “國際的 環境의 側面에서 본 韓國離散家族問題”, 一千萬 離散家族 再會 推進委員會 第3次 國際著名人士 招請 세미나 發表 論文, 1988. 9. 15.